

# 사토 후유카

최근 수정 시각: 2000-01-01 00:00:00

분류:하이큐!!/등장인물 | 이타치야마 학원

사토 후유카  
さとう 冬花



|         |                              |
|---------|------------------------------|
| 포지션     | 매니저                          |
| 출신학교    | 도쇼 중학교<br>이타치야마 학원 2학년       |
| 소속      | 일본 배구협회 국제교류부                |
| 신체      | 168cm / 50kg                 |
| 생일      | 1995년 12월 18일                |
| 가족관계    | 부모님                          |
| 좋아하는 음식 | 따뜻한(아니면 차가운것도 좋다) 우롱차        |
| 최근의 고민  | 씻고 나온 모습을 본 친구들이 미역머리라고 놀린다. |
| 별명      | 설탕, 후유                       |

## 공식 평가

파워:3  
탄력성:4  
체력:2  
두뇌:4  
기술:5  
스피드:3  
총합:21

## 목차

- 1.개요
- 2.성격
- 3.과거
- 4.작중 행적
- 5.인간 관계
- 6.여담
- 7.어록

[편집]

## V 1.개요

오늘 이 경기, 우리꺼니까. 하던대로 하고 와.  
잘 할 수 있잖아?

이타치야마 학원 배구부 매니저로서 첫  
인터하이에 참가하였을 때 사쿠사와 코모리를  
격려하기 위해 한 말.

하이큐!!의 등장인물

[편집]

## V 2.성격

밝고 낙천적이라 가끔은 과열될 때가 있다. 항상 웃고 있지만, 배구를 보는 자세는 누구보다 진지하다. 배구 경기를 볼 때는 누구보다 냉정한 편. 매니저로서 일도 꽤 잘 하는 편인지, 2년동안 그녀 한 명으로 매니저를 총당하고 있으며, 팀원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에 능하다.

친화력이 좋은 편인데, 이 성격은 각 학교 배구부가 모이는 행사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주로 선수들에게 자신이 분석한 플레이를 토대로 한 칭찬을 건네면서 말을 트는데, 특히 네코마의 야쿠와 카라스노의 히나타에게 효과가 잘 드러났다. 선배인 3학년들 뿐 아니라 동급생인 2학년, 후배인 1학년들과도 잘 지내는 편이다.

활발한 성격과는 별개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1,2학년들에게 응원의 말을 해주거나 **보쿠토**의 사기를 북돋아주며 선수들의 멘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배구를 한다는 점에서한 팀이잖아. 그러니까 난 모든 사람을 응원할거야. 모두가 배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는 3학년들과 자주 대화해서 그런 듯 한데, 합숙 당시 **쿠로오**에게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이야기로 상담을 요청하거나 사와무라에게 자신의 팀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같은 학교의 **이이즈나**와도 팀의 방향성에 대해 자주 논의한다.

[편집]

## Ⅴ 3.과거

---

**사쿠사**와 **코모리**와 소꿉친구이다. 같은 중학교 출신이며, 중학교 당시 여자 배구부 에이스로 꼽히는 리베로였다. 그러나 경기 중 어깨 부상으로 현재는 배구 선수를 그만둔 상태. 후유증 탓에 자주 어깨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배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커진 것인지, 고교 배구 선수들의 영상을 자주 보며 분석하고 경기를 보러 다닐 정도로 배구를 좋아한다. 사쿠사가 배구에 애정을 붙이기 시작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후 배구선수를 그만둔 정확한 계기가 밝혀졌다. 선수로 활동하던 중학교 시절 가치관이 맞지 않던 팀 후배와 마찰이 심해진 상태로 경기를 뛰게 되었는데, 경기 도중에까지 그 일 때문에 화가 나있던 후배와의 접촉 사고로 어깨로 넘어지게 되면서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편집]

## Ⅴ 4.작중 행적

---

[편집]

[편집]

## Ⅴ 5.대인관계

---

-**사쿠사 키요오미**와는 소꿉친구이다. '키요'라고 부르며, 사쿠사의 네거티브한 성향이 나올 때마다 잘 컨트롤해준다. 그러나 중학교 시절에는 이와 반대로 멘탈이 약한 후유카를 사쿠사가 통명스럽게 케어해주는 관계였다. 어릴 때부터 사쿠사와 함께 다녔기에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건 무슨 표정인지 대충 알아맞출 수 있다.

-**코모리 모토야**와도 소꿉친구이다. '토야'라고 부른다.어린 시절 내성적인 성격이 코모리의 외향적인 성격에 영향을 받아 바뀐 듯 하다. 틈만 나면 팔씨름 대결을 걸지만 항상 지는 쪽은 본인이다. 배구선수를 포기해야했을 때 "코트에서 있는 것만이 배구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조언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한 장본인이 코모리이다. 이후 매니저로 활동하면서 코모리의 멘탈을 확실히 케어해준다.

-**쿠로오 테츠로**와는 스승과 제자같은 관계이다. 훗날 쿠로오와 비슷하게 배구협회에 취업하게 되는데, 이를 오래 전부터 고민했던 것인지 쿠로오에게 진로상담을 해온 적이 있다. 그 때마다 유쾌하지만 도움이 되는 조언에 힘을 얻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야쿠 모리스케**와는 상호 존경하는 관계이다. 만난 건 고등학생이 된 후지만 서로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었고 서로의 실력이 뛰어나다는 걸 알아서 그런지, 아니면 포지션이

같았어서 그런지 통하는 부분이 꽤 많다. 리베로로써 어떤 공을 받을 때 기분이 좋은지 토론하기도 했다.

-팀의 멘탈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카이 노부유키**와는 비슷한 점이 많다. 서로에게 고민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합숙 당시 후유키는 카이에게 "연습량이 많아 힘들어하는 부원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하나", "서브 미스를 낸 부원에게는 무슨 말이 위로가 될까" 같은 질문을 했다.

-**코즈메 켄마**와도 친분이 있다. 처음에는 켄마가 낮을 가렸지만, 이제는 옆에 앉아도 불편해하지 않는 사이. 런닝을 뛸 때 게임 속 캐릭터가 된 것 같다는 상상으로 힘들음을 완화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후쿠나가 쇼헤이**의 개그를 좋아한다. 만날 때마다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후쿠나가의 개그라고. "A패스 좋은 패스"개그를 제일 좋아한다.

-**야마모토 타케토라**와 근성에 대해서 토론하기도 했다. 그날 저녁에는 근성을 외치며 런닝을 뛰러 나갔다가 감기에 걸리기도 했다.~~(이후 아타치야마 부원들에게 혼쭐났다)~~

-**보쿠토 코타로**에게 어울려 함께 뽀뽀한 쪽을 맡고 있다. 그러나 보쿠토가 위축될 때는 사기를 잘 북돋는데, 이로 인해 **아카아시 케이지**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아카아시와도 먼저 다가가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오이카와 토오루**의 플레이를 감명깊게 본 모양이다. 팀원들에게 줄 분석노트를 쓰기 위해 자주 참고한다고.

-**카라스노**와 친분이 있다. **스가와라 코시**와는 팀에서의 비슷한 포지션(**윙마**)때문인지 어느새 친해져있었다. **니시노야 유**와는 리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고, **히나타 쇼요**와 **카게야마 토비오**에게는 속공 이야기를 꺼내며 말문을 텄다.

-**아오네 타카노부**의 블로킹을 인상깊게 본 듯 하다. 작 중 마주쳤을 때 겁먹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가 말을 걸었다. 이후 아오네는 경기에서 만나면 손을 흔들어준다.

-이나리자키의 **스나 린타로**와 SNS 친구다. 또한 **키타 신스케**와 처음 만났을 때 가지고 온 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니야마 여자고교**의 **아마나이 카노카**와 **요네자와 마이코**의 플레이를 좋아한다. 실제로 경기에서 만났을 때 플레이를 칭찬하며 싸인을 요청했고, 이후에 연락처를 교환하여 연락하고 지내는 듯 하다.

-여자 매니저들과는 상당히 친해보인다. **시미즈 키요코**의 배식업무를 돕기 위해 무거운 식판더미를 대신 나르거나, **시로후쿠 유키에**를 위해 빵을 만들어주거나, **스즈메다 카오리**의 청소 업무를 도와준다. 1학년인 **야치 히토카**에겐 먼저 연락처를 달라고 요청하며 말문을 텄다.

-**조젠지 고교**의 **테루시마**에게 번호를 따인 적이 있다. 가끔 대회 시즌에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듯 하다.

-**노헤비 학원**의 **다이쇼 스구루**와 마주치고 '뭔가 쿠로오 선배와 비슷해...'라고 생각했다.

-우메하라 페리아와는 네코마 선수들과 이야기하던 중 말을 트게 되었다. 페리아에게 간식 선물을 자주 해준다.

-하야시 세이카의 펜싱을 보고 움직임의 느낌이 좋다는 생각을 했다. 봄고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망고빙수를 먹자는 약속으로 꼬셨다(?)

-이치유리 사키와는 중학교 시절 경기에서 만난 적이 있었다. 서로 플레이가 꽤 괜찮다고 생각했었는지, 얼굴을 보자마자 기억해내기도 했다.

[편집]

## Ⅴ 6.여담

---

-친한 사람들 대부분에게 요비스테나 애칭을 사용하며, 그 외에는 ~군, ~짱, ~선배 호칭을 사용한다.

-머리카락이 꽤 길다. 허리를 조금 안 넘는 길이로, 물에 젖으면 미역같다는 말을 듣는다. 여름에 죽을 듯이 더워하지만, 자를 생각은 없어보인다.(↔)

-전화하는 걸 좋아한다. 사쿠사나 코모리 외에도 야치, 카노카 등 다른 학교의 친구들과 자주 전화를 한다.

-취미는 배구경기 분석과 옷 쇼핑이다.

-배구를 그만 둔 뒤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네일아트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가끔은 과거 선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다.(그럴 때마다 사쿠사에게 딱밤을 맞는다.)

[편집]

## Ⅴ 7.어록

---

서술